

의도적 재식술을 이용한 anomaly를 가진 치아의 치료 증례

10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김원찬*, 유미경, 이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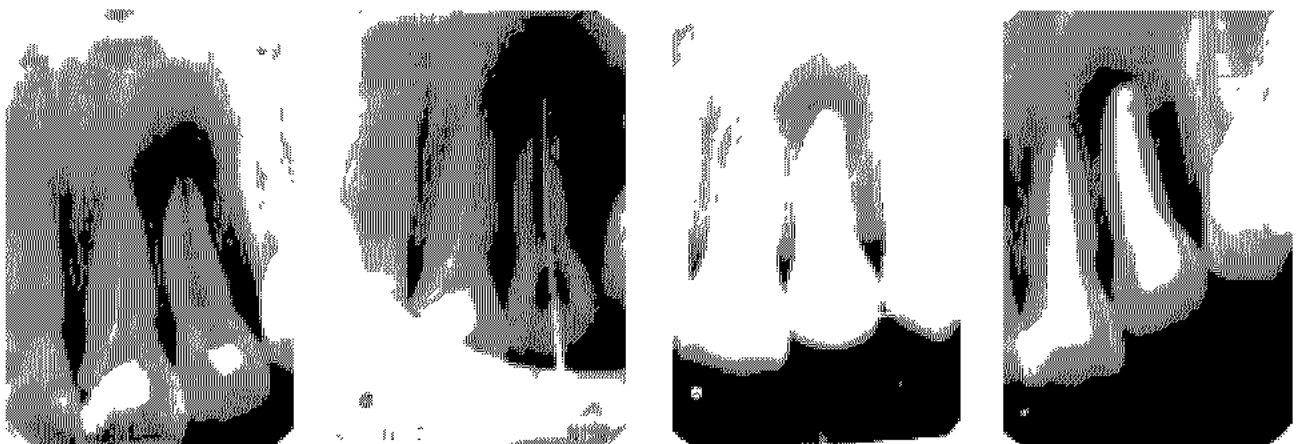
I. 서 론

의도적 재식술은 통상적인 비외과적 근관치료를 통해서 치유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근관치료가 실패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인 이유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통상적인 치근단 수술이 불가능한 대구치 등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II. 임상증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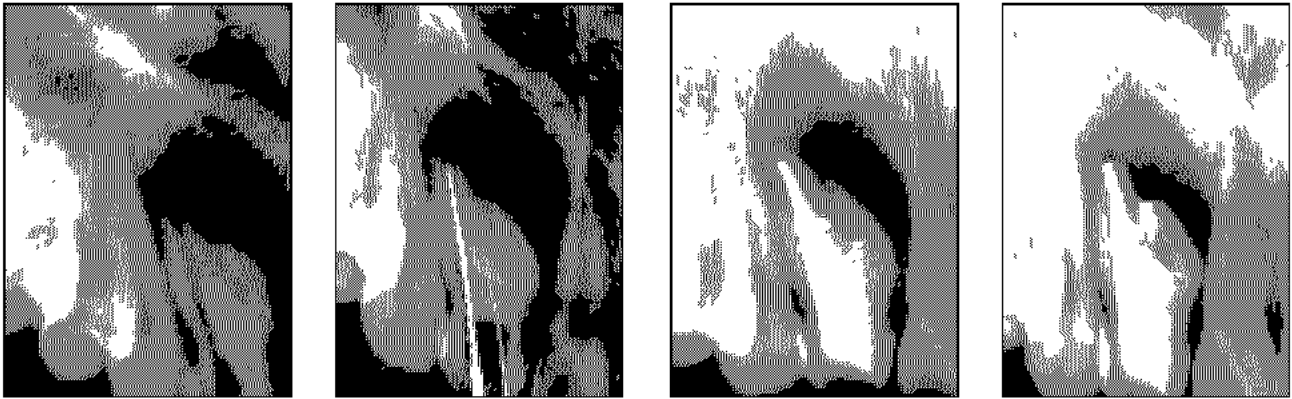
〈증례 1〉

13세 여자환자로 앞니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주소로 개인치과에서 의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개인치과에서 상악 좌측 중·측절치의 근관치료를 받던 중 증상의 완화와 악화만 반복될 뿐 낫지를 않아서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시진상 인접면 우식증과 입시수부물이 있었으며, 방사선 사진상 상악 좌측 측절치의 치근단 부위에 경계가 불명확한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되었다. 처음에는 치근단 농양으로 진단하고 재근관치료 및 Ca(OH)₂ dressing을 시행하였으나 약간의 증상의 완화를 보이다가 다시 pus discharge를 보였다. 이때 palatogingival groove를 발견하였고 의도적 재식술을 계획하였다. 구외에서 치근단 역충전 및 palatogingival groove를 resin modified glass ionomer로 filling한 후 재식하였다. 4개월 후 검사에서 증상이나 불편감은 없었다.



〈증례 2〉

15세 여자환자로 앞니 잇몸이 붓고 매우 아픈 것을 주소로 본원 구강외과를 거쳐 의뢰되었다. 개인치과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으며, 시진상 치은부종 및 입시수복물이 관찰되었고, 방사선 사진상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근단 부위에 경계가 불명확한 방사선 투과상 및 비정상적인 치근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타진 및 촉진 시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근단 농양 및 fusion으로 잠정진단하고 통상적인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근관치료 과정 중에 방사선 사진 상에 보이는 근관계를 모두 찾는데 실패하여 의도적 재식술을 계획하였다. 구외에서 IRM을 사용하여 치근단 역충전을 시행한 후 재식 및 고정하였다. 1개월 후 검사에서 증상이나 불편감을 보이지 않았다.



Ⅲ. 결 론

의도적 재식술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아의 보존이 힘들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발치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식이나 재식한 치아에서처럼 치근흡수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원과 평가가 필요하며,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시술시 구강 외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어린 환자의 경우 악골이 성장 중이므로 근관치료의 실패로 발치할 경우 고정성 보철물이나 임플란트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고정성 보철치료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구강 내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